YISFF 영화제 시놉시스

202040896 임수빈

제목 : 성적을 매겨드립니다

장르 : 드라마

등장인물

석지호 : 남/20/대학생/소심한 성격이지만 배려심이 많다. 점수가 낮은 자신과 사귀는 민경에게 작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경 : 여/20/대학생/밝고 희망찬 성격. 자존감이 높다. 캔디같은 성격.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배경환경. 지호의 여자친구
소개팅 여/남

로그라인

사람에 점수를 매겨주는 어플이 있는 세상. 점수가 높을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재력, 친구, 활동, 취미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어플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한다. 그런데 여기, 점수에 얽매이지 않는 청춘이 있다.

시놉시스

첫 만남에 무조건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핸드폰에 그 번호를 입력하는 사람들. 이름의 옆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게 연신 굽신대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내려다보며 하대한다. 카페에서 그런 이들을 바라보는 민경과 지호.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둘. 그러나 그들의 집에 가서도 점수의 힘은 여전했다. 가족 중에서도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온갖 집안일과, 식사 등을 시키는 것이 당연했고, 낮은 사람은 분해하면서도 그것을 따르기만 할 뿐이다. 민경은 점수가 높았기에, 집에 들어가면 환대를 받지만, 지호는 점수가 낮았기에 집에 들어가면 외면을 받는다.

결국 집에 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지호.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러다 민경에게 전화를 거는 지호. 전화를 받은 민경은 그를 찾아간다. 지호는 민경에게 가졌던 자격지심에 대해 고백하고, 민경은 그에게 점수는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일침한다. 이에 미안해하는 지호는 울며 민경을 껴안는다.